

The final clinic

-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

강사 김태진

Index

Part A. 문학: “문학을 문학답게” < “문장의 정확한 읽기”

Theme 1. 선지의 미시적 판단과 거시적 판단	p. 4
Theme 2. 선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	p. 16
Theme 3.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p. 34
Theme 4. ‘시점’과 ‘시각’의 문제	p. 42
Theme 5. 인물의 간접 제시	p. 52

Part B. 독서: 국어는 결국 ‘독(讀)’ 그리고 ‘해(解)’

Theme 1. 추상적인 지문에 대한 대처 방안	p. 62
Theme 2. 경제+법: 조건과 효과 그리고 계산	p. 74
Theme 3. 인과 관계와 과정	p. 88
Theme 4. 대상의 구조	p. 100

Part A. 문학

“문학을 문학답게” < “문장의 정확한 읽기”

Theme 1. 선지의 미시적 판단과 거시적 판단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학년도 6월]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 오늘은, 약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 놓는다
 ┌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B] 텃탑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커 수염을 흔들곤
 └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C]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D]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 저 약새들
 ┌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E]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약새」 -
 *약새: 왜가리의 별명.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약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약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
 윳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
 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
 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
 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약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약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A]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B]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대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멀거니 섰다.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다 말이지?”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꺾꺾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 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도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건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나.

(중략)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족히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건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른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갈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原牧)」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흥분했네’의 뜻임.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상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5. 어린이와 어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린이가 윤리적으로 순결한 자라면, 어른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자이다.
- ② 어린이가 권력에 복종하는 사회적 약자라면, 어른은 약자를 지배하는 권력자이다.
- ③ 어린이가 새로운 풍습에 적응하는 자라면, 어른은 기존의 풍습에 얽매인 자이다.
- ④ 어린이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위축되는 자라면, 어른은 외부 세계의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이다.
- ⑤ 어린이가 공동체의 이상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라면, 어른은 공동체의 이상을 체득한 자이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굵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닳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년 7월]

(가)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맘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나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십이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을까

고비사막을 끌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인디언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오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갈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나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나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蠶)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뿔을 내어말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에서는 대립적 구조를 이용해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가)에는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골방 안과,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이 존재하는 골방 밖 세계의 대립이 나타난다. 커튼이 쳐진 골방 안의 고립성과 골방 밖 세계의 개방성이 대립 구조를 이루며 화자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 바다와 하늘은 상하 공간 구조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바다와 긍정적 대상인 하늘을 대비하여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내면 상황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골방 안과 골방 밖 세계라는 대립적 구조를 이루는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들 중에서 소외된 상황에 놓인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황혼의 포용성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군.
- ③ (가)에서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달함으로써 골방 안이라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천인의 깊이’의 바다를, 이와 대비를 이루는 ‘꿈꾸’어야 할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군.
- ⑤ (나)에서 화자는 ‘이마를 적’시는 바다에 ‘울음을 참’으며 대응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는 능동적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9월]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얇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 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뺨들뺨들한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지손: 만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자손.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뒷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9.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10.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1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갈귀신이 용용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가)
 [A] 구겨진 하늘은 목은 애기책을 편 듯
 돌담 울이 고정같이 둘러싼 산기슭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墨畵)** 한 폭 종이 쳐.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B]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내는 가시내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도 부끄러워
 솔레잔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C] 그넛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앞내강에 씨레나무 밀려 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뚝뚝**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릿발 잎 저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D] 피로 가곤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곰처럼 어린 늬이 북극을 꿈꾸는데
 늬은이는 늬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E]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洞里)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 이육사, 「초가」 -

(나)
 오늘, **목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앓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다)
 온갖 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트려져 광채가 찬란하다.
 이때에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친다. 때마침 풀

베는 자가 낮을 가지고 와서 손 가는 대로 베어 내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땅이 낱고 하늘이 기르는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택을 입는구나. 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돌레를 물들이니, 천기(天機)를 함께 타고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운 견주어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해아림이 있었겠는가?

(중략)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낮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손아귀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어찌 된 일인가? **뜨락은** 사람 가까이에서 있고 **교외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어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요황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 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뻗뻗이** 늘어선 것들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자리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뜬에 있기 때문인가?

아! **날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 있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그 **조화(造化)가 균일** 하지만,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낱아 주었는데** 또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에게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는**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 이육, 「담초(談艸)」 -

*요황과 위자: 모란의 진귀한 품종을 일컫는 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이끌어 내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악화되어 가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 ① [A]: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② [B]: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앞내강 정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E]: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5.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16.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공교함과 절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는 쓰임새에 기준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 ③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④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⑤ 인간의 감정에는 '소원함'과 '천함'이 모두 있으므로 사사로운 감정을 넘어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17. 목화와 복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복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복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솜이 처'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복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복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적 표현에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①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 ③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④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하는군.
- ⑤ (다)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 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 주는군.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학년도 6월]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력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농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낯 빼앗기지 말고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 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마를 나누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이사온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집 담장들은 모두 빛나는 유리들로 세워졌다

골목에서 놀고 있는 부주의한 아이들이
 잠깐의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는
 그 유리 담장을 박살내곤 했다

그러나 애들아, 상관없다
 우리는 또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이 골목에서 놀렴

유리를 깬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상한 표정을 짓던 다른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곧 즐거워했다**
 견고한 송판으로 담을 쌓으면 어떨까
주장하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골목에서 즉시 추방되었다

유리 담장은 매일같이 깨어졌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후,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유리 담장을 떼어냈을 때, 그 골목은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임이
 판명되었다, **일렬로** 선 아이들은
묵묵히 벽돌을 날랐다

- 기형도, 「전문가」 -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가)는 물질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 가는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 의식을 담고 있다. (나)는 환영(幻影)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대중을 획일적으로 길들이는 권력의 기만적 통치술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①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순수성을 지켜 나가려는 의식을 보여 주는군.
- ② (나)에서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대중을 기만하는 환영의 장치였음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기생충의 생리’는 자족적인 농경 문화 전통에 반하는 문명의 병폐를, (나)에서 ‘주장하는 아이’의 추방은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발돋움의 흥내’를 낸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물들어가는 상황을, (나)에서 ‘곧 즐거워했다’는 것은 권력의 술수에 대중이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떼지어 춤추던’ 모습은 농경 문화 공동체의 건강한 생명력을, (나)에서 ‘일렬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모습은 권력에 종속된 대중의 형상을 보여 주는군.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Theme 2. 선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9월]

(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뒤풀이를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온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뜻늬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굿 뭍?의 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못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ㅣ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사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희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연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햐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

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늙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늙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② ‘바회 굿 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녀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뉘’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5. ㉢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가)
 有客淸平寺 청평사의 나그네
 春山任意遊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鳥啼孤塔靜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花落小溪流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佳菜知時秀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香菌過雨柔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行吟入仙洞 시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消我百年愁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 김시습, 「유객(有客)」 -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쏘나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 흘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아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낚은 다리 건너가니
 온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쑥달임 하세 조 동갑 꽃달임 하세
 닭찜 계찜 올벼 점심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

*수졸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
 대나 만들까 보다.”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
 랑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
 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적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짙
 엉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박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
 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
 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꼭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
 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
 고 있노라면, 가다가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농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웁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A]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
 뜯 주고 행여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
 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
 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
 란 법은 없나 보다.
 [B]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
 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
 지, 속어에 이르기를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튼다는 셈으
 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
 에, 그래도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
 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
 썸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잔체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
 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 뒤송송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
 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
 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
 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
 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
 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의 속성에 주목하여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먼 경치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기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는 표현을 내세워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기에 부합하는 자연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7.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8.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9.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세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욕’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10.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학년도 수능]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복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A]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노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노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받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A]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1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을 활용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계절감이 드러난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특정 계절의 풍속을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 ④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제시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중심으로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12.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패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도를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볍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슨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밥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14~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 조우인, 「자도사」 -

(가)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나는 그물 낚고 아이는 밭을 가니
뒷 뒀에 엄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제1수>

삿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細雨) 중에 호미 메고
산전을 흠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제2수>

대추 불 붉은 골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시고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제3수>

뒀에는 새 다 낚고 들에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
냇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제4수>

- 황희, 「사시가」 -

(나)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하루 찢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임의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마는

㉠천문구중(天門九重)에 갈 길이 아득하니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만호천문(萬戶千門)을 차례로 연다 하되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洞房)을 달았으니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간장이 다 썩어 뉘조차 그쳤으니

천 줄기 원루(怨淚)는 피 되어 솟아나고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빛조차 어두워라

황금이 많으면 매부(買賦)나 하련마는

㉣백일(白日)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은쟁(銀箏)을 꺼내어 원곡(怨曲)을 슬피 타니

주현(朱絃)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냇이 되어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

오경에 잔월(殘月)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

(다)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민밀들을 깨달아 갔다.

석양의 복새, 혹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비가 올 것이므로. 비가 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똑똑르 똑똑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 모든 것들이 말이다.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아파트.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살고 있는 그의 아이는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

그 집, 노란 그 집에 탄생과 죽음이 있었다.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

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

- 공선옥, 「그 시절 우리들의 집」 -

1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5.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초장,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
 - ② <제2수>의 초장,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 ③ <제3수>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제3수>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 ④ <제3수>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
 - ⑤ <제4수>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

16. <보기>에 따라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자도(自悼)’는 ‘자신을 애도한다’는 뜻으로, 죽음에 견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

- ① ㉠을 통해, 임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
- ② ㉡을 통해,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을 통해,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 ④ ㉣을 통해, 무정한 임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을 통해, 임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17.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늑음’은 평온한 분위기의, (나)의 ‘동방’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
 - ② (가)의 ‘언제’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 (나)의 ‘언제’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새’와 (나)의 ‘자규’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
 - ④ (가)의 ‘잠든 나’의 ‘잠’과 (나)의 ‘임의 잠’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
 - ⑤ (가)의 ‘돌아가나’와 (나)의 ‘돌아오니’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

18. 비밀들을 중심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집’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아파트’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 ② ‘그 집 아이들’은 ‘그 집’에서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에 감춰진 ‘비’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③ ‘그의 아이’가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그 집’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탄생과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⑤ ‘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그의 아이’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남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아녀자’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은침’과 ‘오색실’로 ‘임의 터진 옷’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공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다)의 ‘그’가 작가라면, 이 작품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다)의 ‘우리들’에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

‘너의 1교시를 책임질 강한 국어’
메가스터디 러셀 김태진T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A] { 굽어보면 천심 녹수 돌아보니 만첩 청산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나)
 때마침 부는 추풍(秋風)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나 쓰나 술병 매고 벗을 불러
 언덕 너머 어촌에 내 놀이 가자구나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小艇)을 타고 오니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에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갈잎에 닳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은순(紫鱗銀脣)*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태기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황천지(羲皇天地)*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뱃노래에 깨어 보니
 [B] {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두면 내 분에 두랴마는
 즐겨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닳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烟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자린은순: 물고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
 *희황천지: 복희씨(伏羲氏) 때의 태평스러운 세상.
 *동파 적벽유: 중국 송나라 때 소식(蘇軾)이 적벽에서 했던 뱃놀이.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21.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달을 절대적 존재로 인식하고 강호 자연에서 ‘무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는 달에 인격을 부여하여 ‘녹수’와 ‘청산’으로 둘러싸인 강호 자연의 가을 달밤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궁’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양을 달리 하는 달의 특성을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를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강호 자연에 은거한 화자는 달을 대화 상대이면서 동시에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십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수능특강]

흥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무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A]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A]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갈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B]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B]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C] 몰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호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헌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C] 답청(踏靑)*오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C] 호새
 [D]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호새
 꺾 괴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꽃나모 가지 것거 수노코 먹으리라
 [D]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D]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논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호야 시넷(詩)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저오느니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관 거이고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峯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그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니
 연하일휘(煙霞日輝)*호는 금수(錦繡)를 재넛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사
 [E] 공명(功名)도 날 싹우고 부귀(富貴)도 날 싹우니
 [E]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호니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 돌 엇지호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울울리에: 뽕뽕하게 우거진 속에.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나직하게 읊조림.
 *답청: 봄에 파란 풀을 밟고 노는 것.
 *욕기: 기수(沂水)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리를 잊고 유유자적함을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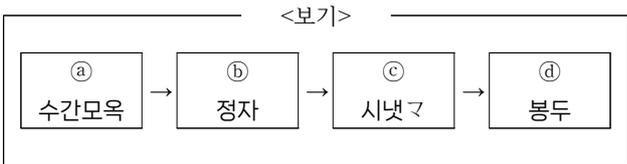
‘너의 1교시를 책임질 강한 국어’
 메가스터디 러셀 김태진T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미음완보: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23.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름다운 자연을 그것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즐기고 있다.
 - ② 선인들이 느꼈던 풍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따르고자 하고 있다.
 - ③ 부귀공명을 탐하지 않고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연 속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과 자연의 이질적인 속성을 발견하여 자연에 동화되는 계기로 삼고 있다.

24. 윗글의 화자가 이동한 공간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화자가 ‘홍진에 못친 분’과 달리 자연에 둘러싸여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공간이다.
- ② ㉡는 사방이 트여 있어 ㉠보다 열려 있는 공간으로, 아름다운 춘경에 동화된 화자가 ‘한중진미’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③ ㉢에서 화자의 의식이 지향하는 자연의 범위가 ‘산수(山水)’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지향 의식을 지닌 채 화자가 ㉣에 이르고 있다.
- ④ ㉣에서 화자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공간을 ‘무릉’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며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로의 이동은 화자의 정신적 경지의 상승과 대응하고 있으며, 속세의 부조리한 속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다.

25.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정경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은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자연에서 생활하며 하고 싶은 일들을 열거하여 속세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D]: 수평적 이동을 해 온 자연물에 의해 일어나는 수직적 움직임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여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수능특강]

무등산 한 활개 뒤편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제월봉(霽月峯)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놓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높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앉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나래 벌렸는 듯 /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흠으라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려곰 좇으니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것도 하도 할사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랴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長空)의 썩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토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초 뿌리는다 남여(籃輿)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분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흐논괴야
 나모 새 즈즈지어 수음(樹陰)이 열린 적의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존 서리 짜진 후의 산 빗치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돌를 쓰라 브니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물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하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 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
 低)에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움열사 간 대마다 경(景)이로다

[A]

인간(人間)을 썩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북랍도 허려 하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딛 곳츠란 뉘 쓸려노
 아츰이 낮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라
 이 뫼히 안즈 보고 저 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막음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야랴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이 다 뫼되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니며 특이며 허이며 아야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넓고 일월(日月)도 흥가하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고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호탕(浩蕩) 정회(情懷)야 이예서 더흘 소냐
 이 몸이 이렇 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송순, 「면앙정가(俛仰亭歌)」 -

[B]

- *산람: 산 아지랑이.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 놓은 궁궐과 대(臺).
- *옥해 은산: 옥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
- *청려장: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 *희황: 중국 상고 시대의 제왕인 복희씨.

2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신의 현재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의 이치에서 위정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우고 있다.

2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풍경을 그리고 있고, [B]는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그리고 있다.
- ② [A]는 화자가 바라본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B]는 자연 속에서 화자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B]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④ [A]는 회고적 진술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 [B]는 세밀한 묘사를 통해 화자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B]는 외부 세계와 화자의 내면을 대비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학년도 수능]

<보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높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군.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 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놓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29.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면앙정가」는 관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 정자를 짓고 사는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면앙정가」는, 마찬가지로 지방에 내려와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한 정극인의 「상춘곡」을 계승한 작품이라 평가되고 있다.

<보기 2>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랴소나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하니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尼)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靑)으란 오늘 하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하세
 꺾 귀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꺾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① 윗글의 ‘즌 서리’와 <보기 2>의 ‘도화 행화’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 주고 있군.
- ② 윗글의 ‘황앵’과 <보기 2>의 ‘새’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재로서의 기능을 하는군.
- ③ 윗글의 ‘부족거니’와 <보기 2>의 ‘적적하니’는 산중 생활의 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군.
- ④ 윗글의 ‘술’과 <보기 2>의 ‘술’은 화자의 삶이 갖는 풍류적 성격을 보여 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군.
- ⑤ 윗글의 ‘벗’과 <보기 2>의 ‘니웃’은 화자가 산중 생활에서 흥취를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수능특강]

[A] 초경(初更)*도 거임디 괴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하기 구차(苟且)흔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삽노라.
 공허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허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계* 우어 니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넝고.
 내일(來日)로 주마 허고 큰 언약(言約) 허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허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허면 혈마 어이홀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애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 쯤칠 쉰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를 기다리니
 [B]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추창(終朝惆悵)*허며 먼 ㉣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동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느다.
 아까운 저 ㉤ 뉘*는 뉘보님*도 도홀세고.
 가시 영긴 목은 밧도 용이(容易)게 갈런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애 슬디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흔 솜을 쉰언지도 오러려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허야 어지버 이저쩌다.
 침피기옥(瞻彼淇澳)*허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허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김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님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랴.
 무심(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허며 말라 허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흔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랴.
 인간(人間) 어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백년(百年) 살나.
 원현이논 몇 날 살고 석승이논 몇 히 산고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는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초경: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눈 첫째 부분(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수기치: 수평.
 *옥지읍계: 구슬 같은 기름이 튀어 오르게.

*간 이근: 갓 익은.
 *삼해주: 정월 셋째 해일(亥日)에 빛은 좋은 술.
 *와실: 달팽이 껍질같이 좁은 자신의 방을 겸손히 일컫는 말.
 *새배: 새벽의 옛말.
 *대승: 봄에 밭 갈기를 독촉한다는 오디새.
 *종조추창: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함.
 *소뉘: 쟁기의 사투리.
 *뉘보님: 쟁기의 날이 잘 선 모양.
 *위루: 누가 됨, 거리낌이 됨.
 *침피기옥: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봄.
 *유비군자: 교양 있는 선비.
 *노화: 갈대꽃.

30.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낸다.
 ② [A]는 가정적인 상황을 통해, [B]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화자가 지닌 가치관을 드러낸다.
 ③ [A]는 의성어 사용을 통해, [B]는 의태어 사용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④ [A]는 대화체의 구성을 통해, [B]는 내적 독백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각한다.
 ⑤ [A]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B]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 화자의 고양된 의지를 보여 준다.

31. <보기>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감각적인 이미지를 환기하며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소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작품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소를 빌리러 감.
↓
소 빌리기가 좌절됨.
↓
㉠ 화자가 듣게 된 것 ㉡ 화자가 보게 된 것

- ① ‘기’ 짓는 소리는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짓는 것으로 묘사되어 화자의 처량한 신세를 드러내 줍니다.
- ② ‘대승’ 우는 소리는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의 한을 돋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화자의 한스러운 정서를 부각합니다.
- ③ ‘먼 들’은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를 유혹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 줍니다.
- ④ ‘농가’는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에게는 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화자의 심리를 부각합니다.
- ⑤ ‘소뿔’은 ㉡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자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합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진왜란의 발발로 인한 격동 속에서 양반들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잃고 궁핍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들은 현실 속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의 양반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단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관념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인로의 「누항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 ① ㉠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화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좌절되어 실망감에 젖은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에는 때를 놓쳐 농사를 망치게 된 것을 한탄하며, 또 다른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화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자연으로 눈을 돌려 자신에게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안빈낙도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학년도 수능특강]

덴둥이를 들쳐 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이전 강산 의구하나 인정 물질 다 변했네
 우리 집은 터만 남아 **썩대밭**이 되었구나
 아는 이는 하나 없고 모르는 이뿐이로다
 그늘진 **은행나무** 그 모습 그대로 날 기다렸네
 난데없는 두견새가 머리 위에 똥똥 떠서
 불여귀 불여귀 슬피 우니 서방님 죽은 낮이로다
 새야 새야 **둔견새**야 내가 올 줄 어찌 알고
 여기 와서 슬피 울어 내 설움을 불러내나
 반가워서 울었던가 서러워서 울었던가
 서방님의 낮이거든 내 앞으로 날아오고
 임의 낮이 아니거든 아주 멀리 날아가라
 두견새가 펄쩍 날아 내 어깨에 앉아 우네
 임의 낮이 분명하다 애고 탐탐 반가워라
 나는 살아 육신이 왔네 낮이라도 반가워라
 근 오십 년 이곳에서 내 오기를 기다렸나
 어이할꼬 어이할꼬 후회막급 어이할꼬
 새야 새야 우지 마라 새 보기도 부끄러워
 내 팔자를 맘에 세졌다면 새 보기도 부끄럽잖지
 첨에 당초에 친정 와서 서방님과 함께 죽어
 저 새와 같이 자옹 되어 천만년이나 살아 볼걸
 내 팔자를 내가 속아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첫째 낭군은 그네 타다 죽고 **둘째** 낭군은 괴질에 죽고
셋째 낭군은 물에 죽고 **넷째** 낭군은 불에 죽어
 이내 한 번 잘 못 살고 내 신명이 그만일세
첫째 낭군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 가지나 말았다면
 산을 보아도 부끄럽잖고 저 새 보아도 무안하지 않지
 살아생전에 못된 사람 죽어서 귀신도 악귀로다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열녀각은 못 세워도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남이라도 욕할 거요 친정 일가들 반가워할까
 잔디밭에 멀거니 앉아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모르는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싫게 우나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 보세
 내 설움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무슨 설움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설위하나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설움 알아 쓸데없소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곳 와서 더 젊은가
 간 곳마다 그러리까 이곳에 오니 더 서럽소

(중략)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데 자며

이전 이야기 대강 하고 신명타령 다 못할러라
영송이 밤송이 다 썩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봤네
 살기도 억지로 못 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 하겠고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그른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그러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A]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 싸 갖고 가서 말리려네
 고생 팔자 타고나면 열 번 가도 고생이지
 이팔청춘 청상들아 내 말 듣고 가지 말게
 아무 동네 화령덕은 스물하나에 혼자되어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다섯 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마는
 아무 동네 장림덕은 갓 스물에 청상 되어
 제가 **춘광***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몹쓸 병이 달려들어 **얕은뱅이** 되었다네

- 작자 미상, 「덴둥 어미 화전가」 -

3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고향’의 자연 경치가 확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에 ‘나’는 상실감을 느낀다.
- ② ‘은행나무’는 귀향의 지표로서 ‘나’는 그것에서 ‘본고향’ 본연의 모습을 느낀다.
- ③ 약 오십 년 만에 ‘본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이웃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고 대한다.
- ④ ‘안노인’은 ‘나’가 울고 있는 사정을 알고자 물어보지만 ‘나’는 침묵하고 울기만 한다.
- ⑤ 여러 장소에서 항상 서러움만을 겪어 왔던 ‘나’는 ‘본고향’에서 더 큰 서러움을 느낀다.

34.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 표명을 가정하여 그 실행을 만류하고 있다.
- ② 부정적인 사례들을 나열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청자를 명시함으로써 화자의 뜻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체험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여 특정 행위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과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건 발생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5. [두견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사별한 임의 현신으로 간주한다.
 - ②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난다.
 - ③ 화자가 반가워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된다.
 - ④ 화자가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 ⑤ 화자가 새로운 임을 만나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36.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여성의 수절을 미덕으로 삼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통념이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서, 덴동 어머니가 기존의 자신을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성장에 도달한 과정은 통과 의례(通過儀禮)의 성격을 갖는다. 인간 성장에 대한 원형적 구조로서 통과 의례는 자신이 속했던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는 ‘분리’,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시련을 겪는 ‘전이’, 시련을 극복하고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모습이나 지위를 획득하는 ‘통합’의 단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며 덴동 어머니는 삶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달관하는 한편, 남성에게 의존하여 고난을 피해 가려고 했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립의 경지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첫째’에서 ‘넷째’까지 이르도록 화자가 거듭하여 시집가는 것은 수절이 미덕이던 기존 가부장제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분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화자가 ‘기어이 한번 살아 보려고’ 다시 한번 시집가기를 결심하고 이행한 것은 남성에게 의존함으로써 삶의 고난을 피해 가려고 노력을 다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③ ‘영송이 밤송이 다 썩 보고 세상의 별 고생 다 해’ 본 경험은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화자가 온갖 시련을 겪은 상황을 말하므로 통과 의례에서 ‘전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나도 수절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는 화자가 다시 시집간 것을 후회하며 기존 사회로 돌아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룬 모습이므로 통과 의례에서 ‘통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에서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을 삶의 본질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달관하는 화자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군.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수능완성]

(가)
 향규(香鬪)의 일이 없어 백화보(百花譜)*를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이름을 뒤라서 지어내고
 진유(眞遊)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행한 후에
 규중(閩中)의 남은 인연(因緣) 지화(枝花)의 머무르니
 유약(柔弱)한 푸른 잎은 봉의 꼬리 넘노는 듯
 자약(自若)히 붉은 꽃은 자하군(紫霞裙)을 헤쳤는 듯
 백옥(白玉)섬 좋은 흠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春三月)이 지난 후에 향기(香氣) 없다 웃지 마소
 취(醉)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가 저허하네
 정정(貞靜)한 기상(氣像)을 여자 밖에 뒤 벗할고
 옥난간(玉欄干)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紗窓)을 반개(半開)하고 차환(叉鬟)*을 불러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상자(繡箱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의 중당(中堂)에 밤이 깊고
 납촉(蠟燭)이 밝았을 때 차츰차츰 고초 안자
 흰 구슬을 갈아 내어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爛漫)
 이 개어 내어
 파사국(波斯國)* 저 제후(諸侯)의 홍산궁(紅珊宮)*을 헤쳤는 듯
 심궁(深宮) 풍류(風流) 절고에 홍수궁(紅守宮)*을 마아는 듯
 섬섬(纖纖)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微微)히 스미는 양
 佳人(佳人)의 아픈 뺨의 홍로(紅露)를 끼쳤는 듯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일봉서(春羅玉字一封書)*를 왕모
 (王母)에게 부쳤는 듯
 [A] 춘면(春眠)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玉鏡臺)를 대하여서 팔자미(八字眉)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紛紛)이 흩어지고
 입으로 불라 하니 섞인 안개 가리웠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朗朗)이 자랑하고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比較)하니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 이 아니 옳은손가
 은근이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일여자(一女子)가 표연(飄然)*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몽롱(朦朧)이 잠을 깨어 정녕(丁寧)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下直)한다
 수호(繡戶)*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黯黯)*이 슬퍼하고 날날이 주어 담아
 꽃에게 말 부치대 그대는 한(恨)티 마소
 세세 년년(歲歲年年)의 꽃빛은 의구(依舊)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번(二十番) 꽃바람에 적막(寂寞)히 떨어진들 뒤라서 슬퍼
 할고

규중(閩中)에 남은 인연(因緣)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鳳仙花) 이 이름을 뒤라서 지어내고 일로하야 지어서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백화보 : 온갖 꽃에 대한 설명을 쓴 책.
- *차환: 머리를 얹은 젊은 여자 종.
- *파사국: 페르시아.
- *홍산궁: 붉은 산호 궁궐.
- *홍수궁: 붉은 도마뱀.
- *춘나옥자일봉서: 비단에 옥으로 박은 글씨. 한 통의 편지.
- *표연이: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는 모양이 거침없이.
- *수호: 수놓은 방장으로 가린 문.
- *암암이: 속이 상하여 시무룩하게.
- *편시춘: 잠깐 지나가는 봄.

(나)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내 눈에 쌓인 잠아
 염치 불구 이내 잠아 검치 두덕* 이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구태 너는 간 데 없어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滋甚)*하노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 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허도(虛度)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無常不請)* 원망 소리 온 때마다 듣난고니
 [B] 석반(夕飯)*을 거두치고 황혼이 대듯마듯
 낮에 못 한 남은 일을 밤에 할라 마음먹고
 언하당(言下當)* 황혼이라 섬섬옥수(纖纖玉手) 바빠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드문드문 질긋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알로 솟아 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
 맑고 맑은 이내 눈에 절로 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검치 두덕: 욕심 언덕.
- *자심: 더욱 심함.
- *무상불청: 청하지 않은.
- *석반: 저녁밥.
- *언하당: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의 뜻임.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7.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 ②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질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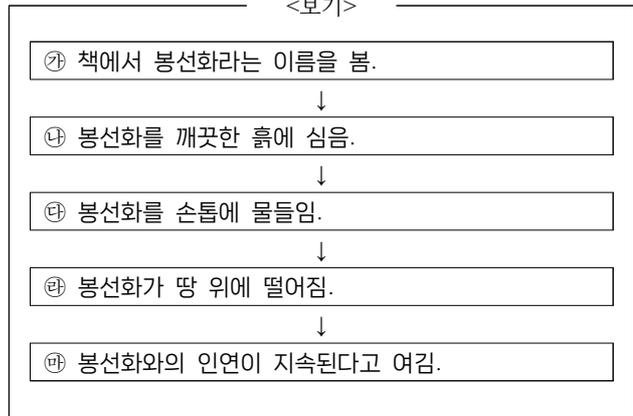
38.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에 여성들은 규중(閨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창작한 시가 작품은 주로 규중의 생활상, 집안일이나 시집살이의 고통 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성 시가의 경우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와 (나)는 그렇지 않다. (가)는 봉선화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섬세한 정서와 규방에서의 생활상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잠을 의인화하여 잠을 참으며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을 해학을 통해 풀어내려 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 ① (가)의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례는 듯 하직는 듯’은 여인들이 집안일이나 시집살이에 대해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는 봉선화를 손톱에 물들이고 애착을 느끼는 화자의 섬세한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의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뇨’는 잠을 참으며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여공’과 (나)의 ‘낮에 못 한 남은 일’은 화자들이 규중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의 ‘그대는 한티 마소’는 봉선화를, (나)의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든고’는 잠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39. (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을 계기로 하여 봉선화라는 이름의 유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 ② 화자는 ㉡를 실행한 후 봉선화의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를 위해 손가락들을 수실로 감는 과정을 거쳤다.
- ④ 화자는 꿈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본 후 ㉣를 예감하고 있다.
- ⑤ 화자는 봄바람에 떨어지는 꽃들과 봉선화 물들인 것을 비교하며 ㉤를 드러내고 있다.

40.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다.
- ② 상반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비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가족에 대한 애정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④ 과도한 노동 속에서도 경제적 보상을 얻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사물들의 긍정적인 속성을 떠올려 삶의 고뇌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

Theme 3.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0학년도 9월]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네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곧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

*진준가: 진주인가.
*한가: 가장 끝 부분.

1.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氣象)의 의미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9월]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꺾소나

(중략)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다시: 시기가 많음.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임 그려 우는 눈물은 옳거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
아서 **후루룩 비쪽** 하나니

- 작자 미상 -

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
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
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
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
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버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쪽’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학년도 수능]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
 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
 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A]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
 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B]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감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指)*,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영인, 「그 나무」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畵)’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여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수능 B형]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잦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예제로: 여기저기로.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이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리즘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셔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 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 ① (가)에서 주인공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걸으면서, 가끔, 창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바람을
 부리로 쪼아 본다, 아직도 벽이 아니고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유리보다도 더 환하고 선명하게 전망이 보이고
 울음 소리 숨내음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고안된 공기,
 그 최첨단 신소재의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려는 듯.

- 김기택, 「새」 -

10.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기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며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성에 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봅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0학년도 수능]

(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 윤동주, 「바람이 불어」 -

(나)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아 보이는,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러나 살랑거리며 날개를 굳게 다리에 매달아 놓는,
 그 적당한 간격은 슬프다.
 그 창살의 간격보다 넓은 몸은 슬프다.
 넓게, 힘차게 뻗을 날개가 있고
 ㉣날개를 힘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새는 다만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걷는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굵어지고 튼튼해져서

- ① ㉠에서는 움직임이라는 ‘바람’의 속성을 ‘괴로움’이라는 내면의 흔들림을 지각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끄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유롭게 창살 사이를 이동하는 ‘공기’의 속성을 ‘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날개’를 ‘힘껏’ 떠받치는 ‘공기’의 속성을 활용해 ‘새’의 ‘날개’가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쪼는 ‘새’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1.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려 가는’이라는 피동 표현을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을 병치하여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없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하는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새」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 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②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일상을 보여 주는군.
- ③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 주는군.
- ④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하늘을 자유롭게 날도록 날개를 믿어 올리는 공기를 음미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듯한 새는,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그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들을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 다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였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

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形)의 도덕을 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같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달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뽀뽀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반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찌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뱃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꺾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4.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거드랑이에 돌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파마늘’이 돌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날개’가 ‘긱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Theme 4. ‘시점’과 ‘시각’의 문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도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찌면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잤던 아틀리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텅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서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

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묘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연 개가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괘짝-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 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한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2.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 ②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3.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 ② ‘나’는 ㉡의 정체와 ‘노인’이 ㉠을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한다.
- ③ ‘나’는 ‘노인’이 ㉠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 ④ ‘나’는 자신과 ㉠의 관계에 대해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⑤ ‘나’는 ㉠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노인’은 ㉠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지각하는 데에서, 과거의 경험이 상징적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군.
- ②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를 듣고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의 현실 인식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돌’, ‘별레’ 같은 것들을 ‘입체 영화’처럼 보며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 체감하는 데에서, 전장의 긴장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군.
- ④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에서, ‘나’가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군.
- 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현실 인식에 대한 ‘나’의 번민이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학년도 9월 A형]

[앞부분 줄거리] 해방 후 ‘나’는 벗인 ‘방(方)’과 함께, 장춘에서 서울에 이르는 귀로에 이른다. 회령에서 우연히 ‘방’과 헤어진 ‘나’는 수성에 이르러 뱀장어를 잡아 파는 한 소년을 만난다. 이후 ‘나’는 ‘방’과 재회하기 위해 청진에 도착하여 어느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노인은 대 끝으로 국 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마는 그 애가 돌아가던 해 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늘 그러구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A] “네에, 그러세요.”
 “그 긴 다섯 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아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러셨겠습니까.”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새끼 몇 되던 것 하나씩 돌씩 이리저리 다 때우기는 하였지마는, 그런 땀들 왜 안 그럴 수가 있었겠나요마는, 이제는 힘을 줄 데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진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 번 내달으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걸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B]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야 아닙니까.”
 하여 드리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방이 되어서 해서 갇혀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 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걸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리어 피골이 상접해서 헌 너저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추주 끼고 다니는 꼴들—어디 매가 갑니까. 벌거벗겨 놓고 보니 매 갈 데가 어딥니까.”
 “.....”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낮에 보이면 조그만한 장터에도 그 험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지*인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볼이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 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려고는 말을 끊고 흐음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겅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우는 몸을 어찌 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적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샅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을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겅바치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업힌 것이 띠 띠*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리며 고개를 개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가 간다는 차가 저기 와 선 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볼이다만, 참다 참다 못해 자원해 나오는 것들이 한 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 내 굶은 것인들 그 속에 어찌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측은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작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짙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려고는 말을 끊고 흐음 깊은 한숨을 들여 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품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영게 통통 부어오른 낮에 기름때에 전 걸레 같은 형겅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우고, 잡힌 채, 길 바추에 비켜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우는 몸을 어찌 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적지척 걸어 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샅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을 앞을 지나쳐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발부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에 오 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꾸부리어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 들고 다른 한 손을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우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리운 활짝 편 그 손가락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여덟 살 난 사넬미*가 엉겅바치를 움켜잡고 비어 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두어 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당기었다. 그리고 업힌 것이 띠 띠*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세 어린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리며 고개를 개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나.

- 허준, 「잔등(殘燈)」 -

*고궁살이: 고궁살이. 남의 집 살이.
 *암질(暗質): 어리석은 천성이나 성질.
 *허친거리며: 발을 헛디뎈 균형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며.
 *고무산, 아오지: 함경북도에 있는 곳으로, 고무산은 농산물과 목재의 집산지였고 아오지는 석탄 산업 시설이 있었음.
 *사넬미: 사내아이의 방언.
 *띠개: 주로 아이를 업을 때 쓰는, 너비가 좁고 기다란 천을 이르는 방언.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은 ‘그 애’가 죽기 전에는 고공살이를 경험한 적이 없다.
- ② ‘아이 몇 잃어버리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불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 ③ ‘행상의 여인네’는 ‘일본인 아낙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과일을 주었다.
- ④ ‘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자식이 옥중에서 죽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 ⑤ ‘사넬미’, ‘어린 계집아이’, ‘업힌 것’ 등 ‘세 어린 것’은 ‘행상의 여인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

6. ㉠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회상을 통해 떠오른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나의 회상 속에는 ‘자기’와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나의 회상을 통해 현재의 ‘자기’가 과거 속의 자아를 부정하고 있다.
- ④ 나의 회상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실제의 상황을 환상적 분위기로 그려 내고 있다.
- ⑤ 나의 회상 속에는 인물의 현재의 처지와 미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7.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작가가 작성한 창작 노트의 일부라고 가정하자.

- ㉠~㉣이 [A], [B]에 실현된 양상을 파악해 보자.
- ㉠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낼 것.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 서술과 대화를 결합해 사용할 것.
- ㉣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활용할 것.
- ㉤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다양화할 것.

- ① ㉠은 [A]에서 ‘노인’과 ‘나’의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로 실현되었군.
- ② ㉡은 [B]에서 ‘사람의 가족은 질기다고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 ③ ㉢은 [B]의 ‘마음이 ~ 하였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서술과 대화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군.
- ④ ㉣은 [B]에서 ‘긴 한숨을 견잡지 못하였다’를 통해 실현되었군.
- ⑤ ㉤은 [A]와 [B]에서 동일 인물을 ‘그 애’, ‘그것’, ‘그놈’으로 바꾸어 부르는 방법으로 실현되었군.

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잔등」에서 서술자인 ‘나’는 해방 전후 우리 사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인식하기 위해 대상과의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등」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삼자의 정신’이란 말은 이를 암시한다. 또한 귀로에서 접한 인물들을 통해 같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측은지심을 드러냄으로써 관용의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이나 잔류 일본인 등과의 만남은 주목할 만하다.

- ① ‘일본인 아낙네’의 아이들이 ‘야단’인 모습을 ‘비참’하다고 한 것에서, ‘나’의 객관적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일본인 아낙네’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행상로 위에서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에서, ‘나’가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
- ③ ‘노인’이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들의 처지가 바뀐 것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한 말에서, ‘노인’이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 ④ 잔류 일본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을 ‘측은한 표현’이라 한 것에서, ‘나’가 제삼자의 정신에서 벗어나 관용의 자세까지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⑤ ‘일본인 아낙네’가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행상의 여인네’의 ‘손가락을 머거니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학년도 6월]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 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네가 일규를 어떻게 아냐? 네간 게 뭘 안다구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나 돌연한 웃음이어서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것처럼 미친 듯이 웃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보았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누가 그놈을 진심으로 사랑한 줄 아냐? 너희냐? 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냐?”

①나는 긴장했다. 그의 눈에서 번쩍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구 했지만 나는 그놈이 죽어 세상 살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놈 역시 사정은 나하구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차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서 살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구 **깊은 산골**을 찾았는지 모르겠군.”

“처음엔 저두 많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세상에 죄를 짓구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②더구나 이리루 들어오시자 머리를 깎구 수염까지 기르셨거든요. 그러나 오래 뒀시구 살다 보니 저대루 차츰 납득이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소?”

“과거 얘기는 좀체 안 하시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는 내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듣기에 따라서는 궤변 같지만 그분은 남하구 다른 ③묘한 철학을 지니구 계셨습니다.”

“그걸 한번 들려줄 수 없소?”

“그분은 세상이 어지럽구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썩지 않게 고치려구 했다가는 공연히 사람만 상하구 힘만 배루 든다는 것입니다. ④‘모두 썩어라, 철저히 썩어라’가 **그분이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입니다. 제 나름의 어설픈 추측입니다만 그분은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온갖 악행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송두리째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철저히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언젠가

는 스스로 자구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믿으셨고, 이러한 자기 생각을 부정(不正)의 미학이라는 묘한 말루 부르시기두 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뭔가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꼈다. 진동의 진상은 확실치 않지만,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의 온갖 기행과 궤변들이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헌데 세상에 대해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 갑자기 왜 세상을 등지구 이런 산속에 박혀 사는 거요?”

“당신께서 아끼시던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버리셨다구 하시더군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으시구 이리루 들어오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랍니까, 그 친구가?”

“이름은 말씀 안 하시구 그분을 언제나 ‘미련한 놈’이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오일규다. 나는 그제야 오일규의 장례식 후에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저 시끄럽던 요설들이 생각났다.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 ⑤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래 그 친구가 죽은 후로 왜 세상을 등졌단니까?”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구 하시더군요. 아마 친구분을 꽤나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미련한 놈이 죽어 버렸으니 자기도 앞으로는 미련하게 살밖에 없노라구 하셨습니다. ⑥당신이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건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착한 일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후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요?”

“전 그분의 과거를 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후로는 그분은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생명을 구한 것두 순전히 그분의 덕입니다.”

나는 다시 기범이 지껄였던 과거의 ⑦요설들이 생각났다. 세상을 항상 역(逆)으로만 바라보던 그의 난해성이 또 한 번 나를 혼란 속에 빠뜨린다.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逆順)과 역행(逆行)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으로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 그에게 악과 선은 등과

[A] 배가 서로 맞붙은 동위(同位) 동질(同質)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그와 오일규가 맞부딪쳤을 때 오일규가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은 가장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 홍성원, 「무사와 약사」 -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9.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배경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
- ④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며 서술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10.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돌연한 웃음을 보이다가 눈물을 보이는 식으로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보인 데 대한 반응이다.
- ② ㉡: 신원이 미심쩍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외모가 의심을 가중했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 ③ ㉢: 세상에 대한 관점이 상식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낸 판단이다.
- ④ ㉣: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낸 표현이다.
- ⑤ ㉤: 말의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숨은 뜻을 파악한 우호적인 해석이다.

1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 데에 기여한다.
- ② ㉡에 대한 얘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풀 목적에서이다.
- ③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④ ‘저’가 ㉡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에 의해 기범을 이해한다.
- ⑤ ‘저’는 기범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가 ㉡에서 ㉠로 변화된 과정과 일치함을 알고 있다.

12.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 또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아예 벗어나고자 한다. 「무사와 악사」에서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①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는 기범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일시하려고던 상대의 부재가 가져 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는 것이겠군.
- ② 기범이 자신을 ‘발길로 걸어찼’던 일규로부터 외면받았다고 본다면, 일규와 ‘서로 사랑했’다고 믿는 기범의 진실은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겠군.
- ③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는 기범의 고백을 동일시의 결과로 이해한다면,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음을 추측할 수 있겠군.
- ④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였다고 본다면, 이는 동일시하려고던 상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서였겠군.
- ⑤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에 해당되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9월]

“누가 돈 쓰는 것을 아랑곳하랬나? 누가 저더러 돈을 쓰라니 걱정인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조금 뜸하여지며 부친이 째지를 풀어서 담배를 담은 동안에 상훈이는 나직이 말을 꺼냈다.

“……돈 쓰신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공연한 일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첫째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무에 어째 공연한 일이란 말이나?”

부친의 어기는 좀 낮추어졌다.

“대동보소만 하더라도 족보 한 질에 오십 원씩으로 매었다 하니 그 오십 원씩을 꼭꼭 수봉하면 무엇 하자고 삼사천 원이 가외로 들겠습니까?”

“삼사천 원은 누가 삼사천 원 썼단?”

①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삼사천 원이란 돈이 족보 박이는 데에 직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 조씨로 무후(無後)한 집의 계통을 이어서 일문일족에 끼려 한즉 군식구가 늘면 양반에 진국이 뉘어질까 보아 반대를 하는 족들이 많으니까 그 입들을 씻기기 위하여 쓴 것이다. 하기 때문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이 영감도 실상은 한 천 원 썼다고 하는 것이다. 중간의 험잡배는 이런 약점을 노리고 우려 쓰는 것이지만 이 영감으로서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 해 보기는 처음이다.

“그야 얼마를 쓰셨던지요. 그런 돈은 좀 유리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하자 유구무언(在下者 有口無言)’의 시대는 지났다 하더라도 노친 앞이라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달았다.

“어떻게 유리하게 쓰란 말이나? 너같이 오륙천 원씩 학교에 디밀고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까부터 상훈이의 말이 화롯가에 앉아서 폭발탄을 만지작거리는 것 같아서 위태위태하더라니 겨우 간성되려던 영감의 감정에 또 불을 붙여 놓고 말았다.

상훈이는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벌게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 의관(덕기의 조부)이 죽고, 덕기가 재산 상속자가 된다. 조 의관의 유산 목록에 정미소가 없었던 것을 안 상훈은 정미소를 차지하려고 한다. 한편 상훈은 세간 값을 적은 종이들을 덕기에게 보내 값을 치르라고 한다.

“어제 그건 봤니?”

부친이 비로소 말을 붙이나 아들은 다음 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았다.

“치를 수 없거든 거기 두고 가거라.”

역정스러운 목소리나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에
②아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안 치러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덕기는 너무 오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말부리만 따고 또 가만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러나 복통이 터져서 속은 끓었다. 속에 있는 말이나 시원스럽게 하고 싶으나 부친 앞에서, 더구나 조인광좌(稠人廣座)* 중에서 그럴 수도 없다.

“이 판에 용이 이렇게 과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간한 세간 나부랭이야 저 집에 안 쓰고 굴리는 것만 갖다 놓으셔도 넉넉할 게 아닙니까?”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 누가 치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다.

“이 판이 무슨 판이란 말이나? 그 따위 아니꼬운 소리 할 테거든 그거 내놓고 어서 가거라. 안 쓰고 굴리는 세간은 너나 쓰렴!”

영감은 자식에게라도 좀 점해서* 그런지 화만 버럭버럭 내고 호령이다.

[B]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

“무어 어째? 널더러 먹여 살리라니? 걱정 마라. 아니 꼭게 내가 무슨 총찰이나? 그러나 정미소 장부는 이따라 내게로 보내라.”

부친은 이 말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었다.

“정미소 아니라 모두 내놓으랴서도 못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있고 없고 간에, 내 거는 내가 찾는 게 아니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게 두시면 어디 갑니까?”

“이놈 불한당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돈 천도 못 되는 것을 치러 줄 수 없다는 놈이 무어 어째?”

부친은 신경질이 일어났는지 별안간 달려들더니 주먹으로 뺨을 갈기려는 것을 덕기가 별떡 일어서니까 주먹이 어깨에 맞았다. 병적인지 벌써 망녕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흥분하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하고 마루로 피해 나와 버렸다. 그러나 금시로 정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속에 앉은 부친은 탄 세상 사람같이 생각이 들었다.

③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 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가면을 벗어 버리고 파탈하고 나서는 것도 오히려 나은 일이라고도 하겠으나, 노래(老來)에 이렇게도 생활이 타락하여 갈까 하고, 덕기는 부친에게 반항하기보다도 다만 혼자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 염상섭, 「삼대」 -

*조인광좌: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점해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훈의 부친은 족보를 만드는 데에 ‘한 천 원’이 들었다며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 ②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돈을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상훈은 자신의 부친이 ‘산소’에 ‘돈’을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④ 덕기는 ‘세간 값’으로 치려야 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 ⑤ 덕기는 집안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미소장부’를 내놓지 않으려 한다.

14.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에게 말을 돌려서 하려는 것이다.
- ②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 ③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이다.
- ④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다.
- ⑤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15. [A], [B]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자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와 달리 [A]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한다.
- ② [A]와 달리 [B]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동정한다.
- ③ [A]와 달리 [B]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아들의 탓으로 돌린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섭을 못마땅해한다.
- ⑤ [A]와 [B] 모두에서 아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아버지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과 ㉡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삼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 ①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②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③ ㉠에서는 영감의, ㉡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그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
- ⑤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와 서술 대상인 상훈의 성격이 드러난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니다.”
 들고 올라온 각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핵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 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혈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구, 살 놈이 죽구 허는 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라……. 증증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하고 나서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편이였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할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귀짝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뿔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놓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이 보낸 통제 배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였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빼뿔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댘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였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험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뜰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듬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덤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언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였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엠피(MP): 미군 헌병.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7.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 ③ 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18. ㉠과 ㉡에 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1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방삼복의 제안에 영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 ③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 준다.
- ⑤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하면 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Theme 5. 인물의 간접 제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년 7월]

[앞부분의 줄거리] 계모 노 씨와 친척 노태의 모해(謀害)로 인해 첫날밤 정을선에게 버림받은 유춘연은 적삼에 혈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유 승상은 딸 춘연의 혈서를 읽은 후 노 씨의 시비를 심문한다.

승상이 시비가 죄상을 털어놓지 않음에 노하여 형벌(刑罰)로 추문하더니, 홀연 공중으로서 외쳐 알,
 “부친은 애매한 시비를 엄형(嚴刑)치 마르소서. 소녀의 애매한 누명을 자연 알리이다.”

하더니, 홀연 방안에 앉았던 노 씨 문 밖에 나와 엎어지며 안개 자욱하고 무삼 소리 나더니 노 씨 피를 무수히 토하고 죽는지라. 모두 이르되,
 “불측한 행실을 하다가 이렇듯 죽으니, 신명이 무심치 아니타.”

하고,
 “불쌍한 소저는 이 팔청춘에 몸뚱 악명을 쓰고 죽으니 철천(徹天)한 원한을 뉘라서 씻으리오?”

노태는 그 경상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노 씨 자녀는 그날부터 말도 못 하고 세상일을 버렸더라.

(중략)

익일에 유모를 따라 한가지로 소저의 빈소에 이르러는 유모가 먼저 들어가 이르되,
 “소저야, 정 시랑 상공이 오셨나이다.”

소저가 대 알,
 ㉠“어미는 어찌 저런 말을 하나뇨? 시랑이 나를 버렸거든 다시 오기 만무하니라.”

유모가 다시 이르되,
 “내 어찌 소저에게 허언을 하리잇고? 지금 밖에 오신 상공이 곧 정 시랑이시니 들어오시라 하리잇가?”

소저가 이르되,
 “정 시랑이신지 분명히 옳으냐?”

유모 알,
 “어찌 거짓말을 하리잇고?”

하고 나와 이대로 고한대, 여사가 친히 문 밖에서 소리하여 알,
 “생이 곧 정을선이니 나의 어리석음으로 부인이 누명을 쓰고 저렇듯 원혼(冤魂)이 되었으니, 그 외 다른 말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리잇고. 을선이 곧 황명(皇命)을 받자와 이곳에 와서 부인의 애매함을 깨닫사오니, 백골이나 보고 이곳에서 한가지로 죽어 부인의 각골지원(刻骨之冤)을 위로코자 하나니, 부인의 명백한 혼령은 용렬한 을선의 죄를 사(赦)하시면 잠깐 뵈옵고 위로함을 바라나이다.”

말 끝에 크게 우니,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알,
 “정 시랑이 이곳에 오시기 만무하니 어디서 과객이 와서 원

통하고 억울하게 죽은 몸을 이렇듯 조르나뇨? 부질없이 조르지 말고 빨리 가라.”

하는 소리가 애절(哀切)하여 원근에 사무치는지라. 유모가 수차 타이드되, 듣지 않으니, 시랑이 유모를 대하여 알,
 “내가 이렇듯 말하되 소저 듣지 아니하니 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들어가 보리라.”

유모가 말려 알,
 ㉡“그러하면 좋지 아님이 있을지라. 깊이 생각하소서.”

여사가 생각하되, ‘이는 철천지원(徹天之冤)이니 범연히 보지 못하리라’하고, 황급히 생각하고 즉시 익주자사에게 관자(關子)*하되,
 ‘익주 순무어사(巡撫御使) 정을선은 자사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수일 내로 유 승상 부중(府中) 녹림원상(綠林苑上)으로 대령하라.’

하니, 익주자사가 관자를 보고 황황히 예를 갖추어 녹림원상으로 오니, 여사가 그늘에 앉아 민간(民間) 사정을 묻고 알,
 “내 전일에 유 승상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더니 마침 이리 지나다가 유모를 만나 그동안 사연을 자세히 들으니, 그 소저가 별세한 지 삼 년이로되 이리이리하오니 어찌 가련치 않으리오? 이러므로 그 원혼을 위로코자 하니 자사는 나를 위하여 의혹을 풀게 하라.”

자사가 듣기를 다 마치매 소저 빈소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길,
 “이는 곧 정 상공일시 분명하고 나는 이 고을 자사옵더니, 정 어사의 분부를 들어 아뢰옵나니 존위(尊威)하신 신령은 살피소서.”

소저가 유모를 불러 말을 전하여 알,
 “아무리 유명(幽明)이 다르나 님녀 분명하거늘 어찌 외인(外人)을 만나리오? 아무리 분명한 정 시랑이라 하되 내 어찌 곧이 들으리오?”

여사가 하릴없이 이 연유를 천자께 주(奏)한대, 상이 들으시고 애처롭게 여기사 원혼에게 벼슬을 하사하여 총렬부인을 봉하시고 직첩과 교지(教旨)*를 내리시니, 언관(言官)이 밤낮으로 내려와 소저 빈소 방문 앞에서 교지를 자세히 읽으니,
 ‘아무리 유명이 다르나 아비를 모르고 님군을 모르리오? 교지를 나려 너의 원혼을 깨닫게 하노라. 정을선의 상소를 보니 너의 참혹한 말을 어찌 다 헤아리리오? ㉢너를 위하여 조서(詔書)를 내리나니 짐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조서를 거역한즉 역명을 면치 못하리라.’

하였더라. 소저가 듣기를 다하매 그제야 유모를 불러 알,
 “천은이 망극하사 아녀자의 혼백을 위로하시고 또 가부(家夫)가 틀림없는 줄을 밝히시니 황은이 태산 같도다.”

인하여 시랑을 청하여 들어오라 하거늘, 여사가 유모를 따라 들어가 보니, ㉣좌우 창호(窓戶)가 겹겹이 닫혔거늘, 여사가 좌우로 살피나 틈이 자욱하여 인귀(人鬼)를 분변치 못할지라. 마음에 비창(悲愴)하여 이불을 들고 보니 비록 살은 썩지 아녘으나 시신이 뼈만 남은지라. 여사가 울며 알,
 “남자야, 나를 보면 능히 알소냐?”

그 소저가 공중으로서 대답하되,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첩의 용납지 못할 죄를 사하시고 천 리 원정에 오시니 아무리 백골인들 어찌 감격치 않으리오? 첩이 박명한 죄인으로 상공의 하해 같은 인덕을 입사와 외람하온 직첩을 받아오니 어찌 감은치 않으리잇가?”

어사 왈,

“어찌하면 남자가 다시 살아날꼬?”

소저가 답 왈,

㉠“첩을 살리려 하시거든 금성산 옥륜동을 찾아가 금성진인을 보고 약을 구하여 오시면 첩이 희생하려니와 상공이 어찌가 구하여 오심을 바라리잇고?”

어사가 기뻐 즉시 유모를 분부하여 ‘행장을 차리라’하여, 유모 부처(夫妻)를 데리고 길에 올라 여러 날 만에 옥륜동에 이르러 기험(崎險)한 산천을 넘어 도관(道觀)을 찾으되, 운무가 자욱하여 능히 찾을 길이 없는지라.

-작자 미상, 「정을선전」-

*관자: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보내던 공문서.

*교지: 임명, 해임 등 인사에 관한 임금의 명령.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을선은 춘연의 혼령을 위로하고자 춘연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 ② 정을선은 자사를 불러 춘연의 원한에 얽힌 사연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③ 승상은 노 씨의 시비를 통해 딸이 죽은 이유를 알게 된다.
- ④ 춘연은 황명을 이유로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려 온 정을선을 모른 척하고 있다.
- ⑤ 유모는 춘연의 빈소 앞에서 교지를 읽어 춘연이 총렬부인으로 봉해졌음을 알리고 있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유모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며 정을선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 ③ ㉢: 천자의 권위를 내세워 춘연에게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정을선에게 닥칠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지명과 인물을 언급하며 정을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과 같은 여성 원귀(冤鬼) 소설에서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원귀가 된 주인공이 자신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원한을 푸는 해원(解冤)의 과정이 나타난다. 이후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환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 ① 춘연이 원귀가 되어 노 씨를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만든 것은 춘연이 자신을 해한 사람에게 복수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춘연이 원귀가 된 사연을 알게 된 후에 정을선은 춘연의 억울함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군.
- ③ 춘연이 자사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군.
- ④ 춘연이 직첩과 교지를 받고서야 정을선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자의 인정으로 춘연의 억울함이 풀렸음을 드러내는군.
- ⑤ 정을선이 춘연을 위해 약을 찾아 옥륜동에 가는 것은 춘연의 환생을 위한 조력자의 노력에 해당하는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헌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에게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옳게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문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

듣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오.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뺨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고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내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③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게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엽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헨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몰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庶母) 석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 부인은 실로 적강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 로다.”
 석파가 취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
 “석 부인은 비단 얼굴뿐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시모이신 양 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운당에 이르러 웃고 알,
 “나를 불러 무엇 하려 하느냐? 내 석 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 부인에게 자랑하나이다.”
 석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은 그런 말을 마소서.”
 하니, 석파 웃더라.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 부인과 상서는 내색 하지 않더라. 일일은 상서가 문안 후 청운당에 가니 여씨 없고, 녹운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 화씨의 방을 엿듣는지라, 도로 청운당에 와 시녀로 하여 청하니 여씨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 알,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뇨?”
 여씨 답 알,
 “㉡문안 후 소 부인의 운취각에 갔더이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책망하며 알,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듣는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 번 띄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늘어갈 일을 생각할지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하더라.
 이후 여씨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써 한 무제와 여 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한지라 다행히 알리오? 일일은 취성전에서 양 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에 불참하매 시녀 계성에게 청소시키니, 계성이 짐짓 침상 아래를 쓸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 내며,
 “알지 못하겠도다. 누가 잃은 것인가? 필연 동료 중 잃은 것이니 임자를 찾아 주리라.”
 하고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 보니, 그 글에 품은 한이 흉악하여 차마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씨의 것이라 크게 괴히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시녀들을 당부하여 알,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즉 죽을죄를 당하리라.”
 좌우 시녀 듣고 송구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계성은 누설치 못함을 조해하고 양 부인은 이후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석씨가 쫓겨난 후,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개옹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 나타나자, 상서는 친누나 소씨, 의남매 윤씨, 석파를 불러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심복을 찾는다.
 시녀가 여씨 심복 미양을 가리켜 아뢰니, 상서가 미양을 잡아 내어 엄하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산하여 사실로 고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 드리니,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내어 주니 진짜 화씨 노기 가득하여 먹고 알,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 되랴? 네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패악을 떨려 하느냐?”
 상서 알,
 “어지럽게 굴지 말라.”
 진짜 화씨는 회면단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거늘 윤씨 웃고 알,
 “아니 먹는 죄 의심되도다.”
 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부더라. 여씨가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 변하여 여씨 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 앉으며 알,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늘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장부 되어 아녀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 석씨를 모함함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석파가 먼 나서며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씨가 계교를 꾸뻤던 일들을 낱낱이 말하더라. 소씨, 윤씨 두 사람이 웃으며 알,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의심이 그르지 않았도다.”
 석파가 몹시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화씨는 꾸짖기를 마지않더라.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뢰더라. 양 부인이 놀라고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에 꿇리고 별주니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들음에 모골이 송연하더라. 이에 여씨를 내치고 계성과 미양 등을 엄히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 작자 미상, 「소현성록」 -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파는 집안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한다.
 - ②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 ③ 여씨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 ④ 양 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 ⑤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

9. 맥락을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이다.
 - ② ㉠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은 상서를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다.
 - ③ ㉠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하는 말이고, ㉡은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말이다.
 - ④ ㉠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은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다.
 - ⑤ ㉠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모 모티프는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이다. 음모의 진행 과정에 환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자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며 죄상에 따라 처벌된다.

- ①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며 양 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 수 있군.
- ② 여씨가 꾸민 ‘봉한 것’이 계성을 통해 양 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 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 수 있군.
- ③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 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되어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 수 있군.
- ④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함을 알 수 있군.
- ⑤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양 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씨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답이 있음을 알 수 있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이때 예부 상서 진량을 황제 가장 총애하시니 진량이 의기 양양하고 교만 방자한지라, 정 상서 일찍 진량이 소인인 줄 알고 황제께 간하되 황제 종시 그렇지 않다 하심에, 진량이 이 일을 알고 정 상서를 해하려 하더라. 차시 황제의 탄생일이 되었는데, ㉠마침 정 상서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더니 황제 만조백관더러 묻기를,

“정 상서의 병이 어떠하더뇨?”

하시고 사관을 보내려 하시니 진량이 나아가 알,

“정 상서는 간악한 사람이라 그 병세를 신이 자세히 아옵니다. 상서가 요사이 황제께 조회하는 것이 다르옵고 신이 상서의 집에 가오니 상서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에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 있는 줄 아나이다.”

황제 대경하여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아뢰길,

“정 상서의 죄 명백함이 없으니 어찌 별로 다스리오리까?”

황제 듣지 않고 절강에 귀양을 정하시니 이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을 전하니, 상서 크게 울며,

“내 일찍 국문을 갚을까 하더니 소인의 참언을 입어 이제 귀양을 가니 어찌 애달지 않으리오?”

하고 칼을 빼어 서안을 치며 말하기를,

“소인을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입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며 눈물을 흘리니 부인은 애원 통도하고 친척 노복이 다 서러워하더라.

사관이 재촉 알,

“㉡황명이 급하오니 수이 행장 차리소서.”

정 상서가 일변 행장을 비하여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천만 의외에 귀양 가거니와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조상 제사를 받들어 길이 무탈하소서.”

하고 즉시 발행할새, 모녀 가슴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정 상서 여러 날 만에 귀양지에 이르니 절강 만호가 관사를 깨끗이 하고 정 상서를 머물게 하더라.

차설. 정 상서 적거한 후로 슬픔을 머금고 세월을 보내더니 석 달 만에 훌연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을 영결하니 절강 만호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부인에게 기별하니라. 이때 부인과 정수정이 정 상서를 이별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일일 문득 시비 고하되, / “절강에서 사람이 왔나이다.”

하거늘 부인이 급히 불러 물으니 답하기를,

“㉣정 상서께서 지난달 보름께 별세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부인과 정수정 이 말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며 혼절하니 시비 등이 창황망조하여 약물로 급히 구함에 오랜 후에야 숨을 내쉬며 눈물이 비 오듯 하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은 장원 급제한 뒤 북적을 물리친다. 이후 황제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고 정혼자인 장연과 혼인한다. 호왕이 침공하자 정수정은 원수, 장연은 중군장으로 출전한다.

㉤대원수 호왕에 승리하여 황성으로 향할새 강서 지경에 이르러 한복더러 묻기를,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수십 리는 되나이다.”

원수 분부하되 철기를 거느려 결박하여 오라 하니 한복 등이 듣고 나는 듯이 가 바로 내실로 들어갈새 진량이 대경하여 연고를 묻거늘 한복이 칼을 들어 시종을 베고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와 대원수께 고하되, 대원수 이에 진량을 잡아들여 장하에 꿰리고 노기 대발하여 부친 모해하던 죄상을 문하니 진량이 다만 살려 달라 빌거늘, 원수 무사를 호령하여 빨리 베라 하니 이윽고 무사 진량의 머리를 드리거늘, 대원수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더라.

황제께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중군장 장연을 기주로 보내고 대군을 지휘하여 경사로 향하여 여러 날 만에 궤하에 이르니, 황제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하시고 좌각로 평복후를 봉하시니 대원수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알,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11. 밑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자신이 총애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정 상서를 처벌하기로 결심한다.
 - ② ‘중관’은 정 상서를 처벌하기에는 그 죄가 분명하지 않음을 황제에게 주장한다.
 - ③ ‘정 상서’는 자신이 소인의 참언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④ ‘한복’은 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 ⑤ ‘원 부인’과 ‘공주’는 정수정이 도리를 지켜 원만하게 지낼 것임을 내세워 태부인을 진정시킨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으로 진량에게는 정 상서를 모함할 기회가 생긴다.
 - ② ㉡으로 정 상서는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된다.
 - ③ ㉢으로 부인과 정수정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게 된다.
 - ④ ㉣으로 정수정은 황제로부터 노고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다.
 - ⑤ ㉣으로 정수정은 걱정을 덜며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1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귀양살이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② ㉠은 황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③ ㉢은 호왕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④ ㉢은 황제를 직접 만나 보고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⑤ ㉠과 ㉢에 담긴 소식은 황제 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담당’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Part B. 독서

“국어는 결국 독(讀) 그리고 해(解)”

Theme 1. 추상적인 지문에 대한 대처 방안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예시문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로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A]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1.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 _____분에게 추천합니다.

-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3.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4.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 독립적인 존재인

[7~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년 3월]

(가)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앎,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S는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 적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지식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게티어다. 다음의 예를 통해 그가 **㉢**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 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다.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안에서 들리는 환호성을 듣고 나는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 대 0이다. 이때 **㉡**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는 내 믿음은 정당화되며 참이다.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이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였다.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게티어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화 기준을 만들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정당화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에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다.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관한 내 믿음이 바로 지구는 둥글다는 내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본다. 이때 인식 주체의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정당화 요인에 대해 그가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외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 근거, 즉 그 믿음들이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내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도 했다.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지식 개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나)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흔히 주자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거론한다. 격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그 극한에까지 사물의 이치인 리(理)를 탐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지란 나의 지식을 극한까지 **㉤** 연마하고 확장하여 앎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앎이 있지 앎이 없어서 격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앎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유가 철학의 전통적인 격물론이다.

주자의 영향을 받은 퇴계는 기본적으로는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당초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物格)을 ‘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런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이를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리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理自到)’이다.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 허용한 것은 아니다.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맥락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퇴계는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모두에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게티어는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 ② 게티어는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우연적으로 참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 ③ 내재주의에 따르면 어떤 믿음의 정당화에는 그 믿음을 정당화해 주는 인식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 필요하다.
- ④ 게티어 이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지만 지식이 아닌 것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론자들이 있었다.
- ⑤ 전통적 인식론에서 인식적 정당화는 우리가 믿는 믿음들이 참이라고 할 만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인식 주체: S
○ 명제 P: 교실 분필 개수는 13개이다

- 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있다.
- ②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③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 ④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이어야 한다는 요소가 필요하다.
- ⑤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S가 P를 안다고 할 수 없다.

9. <보기>는 퇴계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주자가 “리(理)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보면,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르고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이라고만 하는가”라는 말을 보면,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리(理)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르는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 ① 주자는 사람에게 모든 앎이 갖추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만년에 퇴계가 리가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군.
- ②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군.
- ③ 주자는 리에 능동성이 있어야 온전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퇴계가 리의 작용이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근거가 되었겠군.
- ④ 퇴계는 물격을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이는 리의 작용이 미묘하여 리가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겠군.
- ⑤ 퇴계가 초기에는 리가 스스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여겼다가 만년에는 리가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작용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자가 리의 능동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군.

10. ㉠의 입장에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내 믿음’은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② ㉡에서 ‘내 믿음’은 승진 축하연에 의한 것이지 축구 시합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은 지식이 아니다.
- ③ ㉡에서 ‘내 믿음’과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므로 ‘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④ ㉡에서 ‘내 믿음’은 비록 오해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한국이 골을 넣었다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 ⑤ ㉡에서 ‘내 믿음’은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성되었고 실제 한국이 골을 넣었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다. 따라서 ㉠은 지식이다.

11.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읽기 활동이다. 학생이 수행한 활동의 내용이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비판적 읽기 활동

[글에 담긴 필자의 입장 비판하기]

○ (가)의 필자는 외재주의의 한계는 문제 삼았지만 내재주의의 한계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필자의 입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나)의 필자는 퇴계가 주자의 격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이 내용의 타당한 근거를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나 화제 등에서 서로 관련 있는 부분을 비교하기]

○ 앎이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가)는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을, (나)는 퇴계가 물격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을 다루고 있다.……㉢

○ (가)는 현대 철학에서 지식의 습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나)는 전통 철학에서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 ② ㉡: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
- ③ ㉢: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 ④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 ⑤ ㉤: 허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임.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가)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흠이 지적했듯이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할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새면의 과정 이론이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 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가령 바나나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1이라고 하자.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내는 과정2가 과정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1에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 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3이라 하자. 과정1과 과정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과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4가 과정3과 교차했다고 하자.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과정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이론은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나)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

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사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재이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응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이론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재이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재이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재이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였다. 그는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재이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3. 다음은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항목	학습 내용	
	(가)	(나)
도입 문단의 내용 제시 방식 파악하기	ㄱ	ㄴ
⋮	⋮	⋮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ㄷ	ㄹ
특정 개념과 관련하여 두 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ㅁ	

- ① ㄱ: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 제시하였음.
- ② ㄴ: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과 중심 내용을 제시하였음.
- ③ ㄷ: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하였음.
- ④ ㄹ: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이 반영되는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였음.
- ⑤ ㅁ: ‘인과’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특정 이론들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음.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다.
- ② 사회 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 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 ③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 ④ 한대의 재이론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를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 ⑤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일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나나와 그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 ② 과정1이 과정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다.
- ③ 과정1과 달리 과정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 ④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 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3이 과정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 ⑤ 과정3과 과정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3으로도 과정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1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재이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 ② ㉠은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재이의 인과 관계를 역전시켜 재이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 주는 징조로 삼는 데 활용되었다.
- ③ ㉡은 개별적인 재이 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 보고 정치와 무관하게 재이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 ④ ㉡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재이 현상을 연결 짓는 방식으로 이어져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 ⑤ ㉡은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무관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기초로 활용되었다.

17.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만약 인과 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올바른 경로이다.

㉡ 인과 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들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 덕이 잘 담긴 치세에서는 재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의 때에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흉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 하류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흉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 지방의 지방관은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 ① 흠의 문제 제기와 ㉠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 있겠군.
- ② 인과 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 작용으로 국한하는 ㉡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응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재이론이 보여 준 입장과 부합하겠군.
- ③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재이의 출현 여부로 설명하는 ㉢에 대해 동중서와 주희는 모두 재이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하겠군.
- ④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본 ㉣는 새면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 ⑤ 지방관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흉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새면은 실정이 흉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에 동의하겠군.

18.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모두가 만족하는 대책을 찾으려 머리를 맞대었다.
 - ②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확인해라.
 - ③ 건강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 ④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을 찾는 중이다.
 - ⑤ 선생은 독립을 다시 찾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가)

㉑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㉒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㉓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㉔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㉕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흥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㉖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㉗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21.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22.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23.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헤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24.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포착(捕捉)한다
- ③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간주(看做)하면
- ⑤ ㉤: 결성(結成)되지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㉔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㉕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㉖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㉗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㉘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㉙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버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 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점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㉚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㉛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 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25.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제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26.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④ ㉣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8. 윗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 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9.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겠군.
-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했다
- ② ㉡: 받아들여
- ③ ㉢: 밀던
- ④ ㉣: 끼어들었다는
- ⑤ ㉣: 이어졌지만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
 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
 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
 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
 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
 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
 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동
 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
 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
 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
 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지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
 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
 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
 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
 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
 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
 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
 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
 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
 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
 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
 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
 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
 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
 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
 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
 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
 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
 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
 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나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3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
 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 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나)는 (가)와 달리 논 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 용함.....㉣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3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 되기 때문이다.
-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34.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35.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뎠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바꾸는
- ② ㉡: 동떨어진
- ③ ㉢: 바라보는
- ④ ㉣: 빼앗는다
- ⑤ ㉤: 찾아내는

Theme 2. 경제+법: 조건과 효과 그리고 계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수능]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며, 국제 관습법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 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의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가중 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

순위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는 28개국의 금융 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 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현행 법제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 만하다는 징표를 국제 금융 시장에 보여 주어야 했던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받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현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soft law)의 모습**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hard law)이라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응고될지 모른다.

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내용과 그 변화 양상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작용하는 규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한 국제적 기준이 제정된 원인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의 규범을 감독 권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수용되는 규범의 필요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
 - ④ 특정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특징을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국제적 기준의 설정 주체가 바뀐 사례를 서술하며 국제 사회에서 규범 설정 주체가 지닌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 ③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 ④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 BIS 비율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 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②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 ③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진다.
- ④ 바젤 II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 ⑤ 바젤 III 협약에 따르면,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완자본이 최소 2%는 되어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4.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 은행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갑 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 II 협약의 표준 모형에 따라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이다. 그 이외의 자본 및 자산은 모두 무시한다.

항목	자기자본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후순위채무
금액	50억 원	20억 원	40억 원

항목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시장 위험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국채	회사채	
금액	300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 ① 갑 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 ② 갑 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 ③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 ④ 갑 은행이 바젤 I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 ⑤ 갑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III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5.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젤위원회가 국제 금융 현실에 맞지 않게 된 바젤 기준을 개정한다.
- ② 바젤위원회가 가입 회원이 없는 국가에 바젤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 ③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준수 의무가 있는 바젤 기준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다.
- ④ 바젤위원회 회원의 국가가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⑤ 바젤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반영하여 산출하도록
- ② ㉡: 8%가 넘도록
- ③ ㉢: 바젤위원회에 가입하지
- ④ ㉣: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 ⑤ ㉤: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이 될지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1학년도 6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③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A]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7.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8.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과제:** ‘①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①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0.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 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11.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④**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다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 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⑥**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⑦**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①**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⑧**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⑨**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3.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①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①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A	B
①	클	클
②	클	작을
③	같을	클
④	작을	클
⑤	작을	작을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던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던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15.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 ②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 ③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 ④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 ⑤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7학년도 수능]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㉔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된다.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확률에 근접하게 된다.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㉕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㉖인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㉗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㉘배제된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㉙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6.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에 내재된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있다.
-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17.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험사가 청약율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 ②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금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 ③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④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 ⑤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18.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19. 위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②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 ④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 ⑤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20.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B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

- ①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 ②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A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③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④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⑤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1. ㉠~㉣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 ②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 ④ ㉣: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⑤ ㉤: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법률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2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24.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6.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

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7. 위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9.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	㉨
본계약상 급부	㉧	식사 제공

- | | ㉦ | ㉨ | ㉧ |
|---|----------|-------------|----------|
| ①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㉔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3학년도 9월]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③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3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 ②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 ③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④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 ③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 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단, 세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지분이다.
- ③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④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1}{3}$ 지분이다.
- 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Theme 3. 인과 관계, 과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학년도 수능 B형]

우리는 가끔 평소보다 큰 보름달인 ‘슈퍼문(supermoon)’을 보게 된다. 실제 달의 크기는 일정한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달의 공전 궤도가 타원 궤도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타원은 두 개의 초점이 있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원 모양에 가까워진다. 타원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긴 지름을 가리켜 장축이라 하는데,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장축의 길이로 나는 값을 이심률이라 한다. 두 초점이 가까울수록 이심률은 작아진다.

달은 지구를 한 초점으로 하면서 이심률이 약 0.055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이 궤도의 장축 상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지점을 ‘원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 한다. 지구에서 보름달은 약 29.5일 주기로 세 천체가 ‘태양-지구-달’의 순서로 배열될 때 볼 수 있는데, 이때 보름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슈퍼문이 관측된다. 슈퍼문은 보름달 중 크기가 가장 작게 보이는 것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 이는 지구에서 본 달의 겉보기 지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을 각도로 나타낸 것을 각지름이라 하는데, 관측되는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각지름이 커진다. 예를 들어, 달과 태양의 경우 평균적인 각지름은 각각 0.5° 정도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구 역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으므로, 궤도 상의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다. 달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공전 궤도의 장축 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갖는데, 이를 각각 원일점과 근일점이라 한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러한 거리 차이에 따라 일식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세 천체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늘어서,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을 때, 일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달이 근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의 전체 면적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관측된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같은 조건에서 달이 원지점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면 대부분의 경우 태양 면이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태양 면의 가장자리가 빛나는 고리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이 관측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일점, 근일점, 원지점, 근지점의 위치는 태양, 행성 등 다른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미세하게 변한다.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약 0.017인데, 일정한 주기로 이심률이 변한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더 작아지면 근일점은 현재보다 더 멀어지며 원일점은 현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달의 공전 궤도 상에 있는 근지점과 원지점도 마찬가지이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천체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현재보다 커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양의 인력으로 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약간씩 변화될 수 있다.
 - ② 현재의 달 공전 궤도는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보다 원 모양에 더 가깝다.
 - ③ 금환 일식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각지름은 달의 각지름보다 크다.
 - ④ 지구에서 보이는 보름달의 크기는 달 공전 궤도 상의 근지점일 때보다 원지점일 때 더 작게 보인다.
 - ⑤ 지구 공전 궤도 상의 근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은 원일점에서 관측한 태양의 각지름보다 더 크다.

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북반구의 A 지점에서는 약 12시간 25분 주기로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이 현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와 가장 낮은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한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차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천체의 다른 조건들은 고정되어 있고, 다만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과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이 조차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

- ①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1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보다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되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②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보름달이 관측된 1월에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보다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③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에 변화가 없다면, 7월에 슈퍼문이 관측될 때보다 7월에 원지점에 위치한 보름달이 관측될 때, A 지점에서의 조차가 더 크다.
- ④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1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1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 ⑤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만이 더 커지면,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A 지점에서 7월에 나타나는 조차가 이심률 변화 전의 7월의 조차보다 더 커진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0학년도 9월]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이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위성항법장치)나 IMU(관성측정장치)를 사용한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측정한다. GPS는 위치 오차가 시간에 따라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파 지연 등으로 접속 초기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고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GPS 신호를 받기 어렵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의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 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삼변측량 기법은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한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에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심점을 단말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①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 준다.

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GPS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치는 기준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 ②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야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 ③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신호가 도달하는 단말기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 ④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주위에 위성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 ⑤ IMU는 단말기가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4.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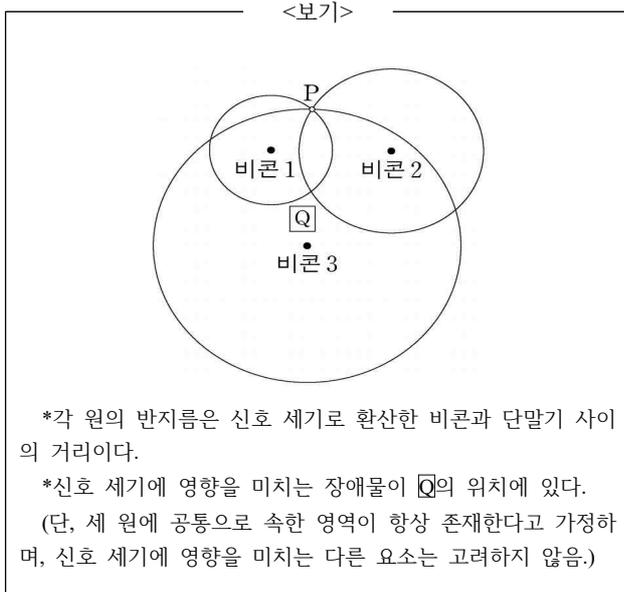
- ①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지연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 ② GPS는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오차가 커진다.
- ③ IMU는 순간적인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진다.
- ④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한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보정할 수 있다.
- ⑤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 ② 단말기가 측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 ④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정확한 위치 측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 ⑤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의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 세기와 식별 번호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6.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근접성 기법과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 ②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신호 순이겠군.
- ③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 ④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 ⑤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 세기만 약해진다면, 삼변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2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6월]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 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 ②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 ③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 ④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 ⑤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8. 윗글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이스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 ②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 ③ 보이스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 ④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 ⑤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A),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C)이/가 늘어난다.

	A	B	C
①	클수록	클수록	프레임의 수
②	클수록	작을수록	시간
③	클수록	작을수록	프레임의 수
④	작을수록	클수록	시간
⑤	작을수록	작을수록	프레임의 수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0.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



㉠ k 번째 프레임



㉡ k+1 번째 프레임

- ① ㉠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②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 ③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하겠군.
- ④ ㉠은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 ⑤ ㉡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수능]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촬영된 영상과 실제 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제 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제 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제 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제 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11.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1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④ ㉣과 실제 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13.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14.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 ④ 물의 온도가 어는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6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리인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비타민 K_1 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비타민 K_2 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_1 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질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비타민 K_1 과 K_2 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_1 은 간세포에서, K_2 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_1 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_2 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_1 과 K_2 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_2 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15.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16. 칼슘의 역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_1 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17. ①과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은 ②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② ②은 ①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③ ②은 ①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④ ①과 ②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⑤ ①과 ②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리린을 분해함.

(다) **헤파린**: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리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학년도 9월]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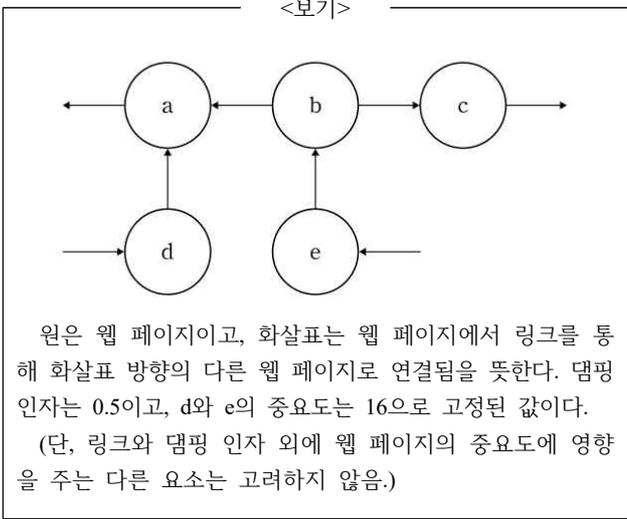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1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 ②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댄핑 인자가 커진다.
 - ③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 ④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 페이지에 나눠 주는 값의 합이다.
 - 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20. ㉠, ㉡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에서 웹 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을 높인다.
 - ②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 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③ 알파벳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 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을 높인다.
 - ④ 다른 많은 웹 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 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고 전체 글자 수를 많게 하여 ㉡을 높인다.
 - ⑤ 다른 웹 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을 높인다.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중요도는 16이다.
- ② a가 b와 d로부터 각각 받는 값은 같다.
- ③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 ④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
- ⑤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5이다.

22.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은 자정이 넘었다.
 - ② 그들은 큰 산을 넘어서 마을에 도착했다.
 - ③ 철새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월월 날아갔다.
 - ④ 선수들은 가까스로 어려운 고비를 넘었다.
 - ⑤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넘어서 좀 당황했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Theme 4. 대상의 구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6월]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의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다.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A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 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도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LFIA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색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정한다. 한편 경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

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반대로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뉜다. 민감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특이도는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한다.

1.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LFIA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 ②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 ③ LFIA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 ④ LFIA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다면 시료에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 ⑤ LFIA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 ② ㉠은 ㉡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③ ㉡은 ㉠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 ④ ㉡은 ㉠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겠군.
 - ⑤ ㉠과 ㉡은 모두 시료에 들어 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겠군.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A)가 적을수록 민감도는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는 높다.

	A	B
①	진양성	진음성
②	진양성	위음성
③	위양성	위음성
④	위음성	진음성
⑤	위음성	위양성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균 분석법은 정확도는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④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 ① ④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 ② ④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 ③ ④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군.
- ④ ④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
- ⑤ ④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 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소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소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소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

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6.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7.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8.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 ① 장면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숫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 ② 장면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 ③ 장면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 ④ 장면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지겠군.
- ⑤ 장면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숫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나 상대적으로 비용

이 비싸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_t 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_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_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A]

9.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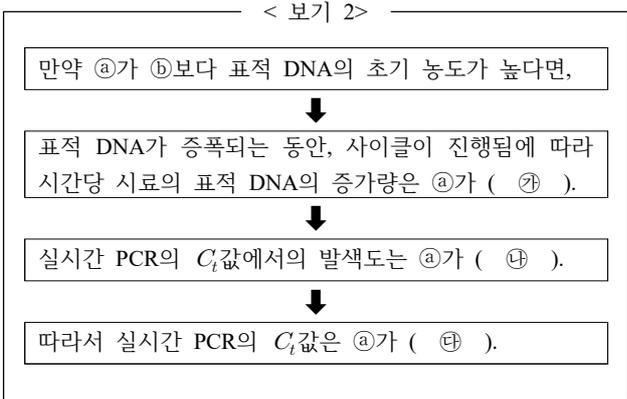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11.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12.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보기 1> —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 | | ㉠ | ㉡ | ㉢ |
|---|---------|---------|---------|
| ① | ㉡보다 많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 ② | ㉡보다 많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③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작겠군 |
| ④ | ㉡와 같겠군 | ㉡와 같겠군 | ㉡보다 작겠군 |
| ⑤ | ㉡와 같겠군 | ㉡보다 높겠군 | ㉡보다 크겠군 |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정답-

Part A. 문학

Theme 1. 선지의 미시적 판단과 거시적 판단

1	2	3	4	5	6	7	8	9	10
⑤	④	②	④	⑤	④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⑤	③	③	③	②	④	①	④	①	

Theme 2. 선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①	⑤	④	⑤	③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⑤	③	⑤	②	②	①	①	②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③	②	⑤	⑤	③	⑤	②	②	③	④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③	③	②	④	⑤	④	⑤	①	②	②

Theme 3.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④	④	②	④	①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④	④	⑤	④	③	③				

Theme 4. ‘시점’과 ‘시각’의 문제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④	④	①	①	⑤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⑤	①	⑤	③	⑤	③	①	③	⑤

Theme 5. 인물의 간접 제시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④	②	⑤	④	③	④	⑤
11	12	13	14						
④	②	③	④						

The final clinic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Part B. 독서

Theme 1. 추상적인 지문에 대한 대처 방안

1	2	3	4	5	6	7	8	9	10
⑤	①	①	④	③	③	①	①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④	④	②	②	①	①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③	②	③	①	③	④	①	②	③
31	32	33	34	35	36				
③	①	⑤	⑤	③	①				

Theme 2. 경제+법: 조건과 효과 그리고 계산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⑤	⑤	③	④	⑤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⑤	④	②	③	④	⑤	①	④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①	⑤	⑤	②	③	①	⑤	③	①	④
31	32	33	34	35					
②	②	④	②	④					

Theme 3. 인과 관계, 과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⑤	⑤	③	③	①	②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①	②	④	③	②	⑤
21	22								
⑤	①								

Theme 4. 대상의 구조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②	②	②	④	④	①	②
11	12								
④	②								